

불안정한 행동의 예방

박 무 일

(사)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교수
건설안전기술사

1. 산업재해와 불안정한 행동

산업재해는 직접원인으로 볼 때 98%가 불안정한 상태와(10%)와 불안정한 행동(88%) 접촉에 의하여 일어나고 이 중 하나 또는 둘 다 같이 제거하면 사고는 예방된다는 것이 하인리히의 사고의 연쇄성(도미노)이론의 결론이다.

따라서 사고예방을 위해서 불안정한 상태의 제거는 무엇보다도 불안정한 행동을 유발시키지 않기 위해 선행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또한 아무리 시설이 잘 되어 있더라도 사람의 불안정한 행동은 일어나므로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이를 병행하여 전개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불안정한 상태를 만드는 것도, 또한 불안정한 행동을 하는 것도 사람이다. 따라서 이를 포괄하여 총칭하면 이를 모두 불안정한 행동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재해예방의 근원적인 대책은 먼저 불안정상태를 제거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의력에 의존하는 것은 언젠가는 실패한다. 불안정상태를 개선하기 위

한 경제적·기술적 조치는 안전인식의 정도에 관계가 된다.

또한 사람의 주의력에는 한계가 있다. 사람에게서 공통적인 결함이나 개인적인 결함이 있어 완전한 사람을 바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끝으로 물체 측면에서도 사람의 측면에도 불안정한 것뿐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안전관리의 방향은 불안정상태를 개선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불안정행동의 합리적인 배제를 병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불안정행동을 합리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생리적, 심리적인 대책을 통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망된다.

2. 불안정한 행동의 종류

불안정행동의 분류는 형태적인 분류도 있을 수 있으나 안전관리를 실제로 추진하기 위한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가 있다.

작업의 위험에 대한 지식 부족,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의 미숙,
안전에 대한 태도 불량(의식 부족),
인간의 특성으로서의 과오(error)에 의한 것,

즉 모른다(지식의 부족), 할 수 없다(기능의 미숙), 하지 않는다(태도의 불량, 의욕의 결여), 인간과오의 4종류로 대별된다.

(1) 지식의 부족

작업자가 자기의 직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식이 부족하면 능률적이고 안전하면서도 질이 좋은 작업을 수행하기는 어렵다. 작업에 필요한 지식에는, ① 자기의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인 지식과 ② 작업과 관련이 있는 위험과 그 방호방법의 지식이 있다. 이 두 가지는 일체가 되어야만 하나, 실제로는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다. 작업은 할 수 있으나 안전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있다.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으나 단순히 안전의 지식을 부여하는 것보다 안전하고 바르게 실행하고, 지시된 것을 틀림없이 지키는 인간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또한 자기 스스로가 안전상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2) 기능의 미숙

불안전행동에 의한 재해는 기능이 미숙하거나 작업경험이 낮은 자에게 빈발한다. 어떠한 작업이라도 안전에 관계하는 특수성이 있다. 경험과 숙련에 의해서 작업준비 및 작업방법의 개선으로 안전작업이 될 수 있다.

(3) 태도의 불량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안전기준이 정해져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 지키지 않아도 자기는 부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보며 번잡하고 성가시면 절차를 생략한다 등은 불안전행동 중 가장 많은 예이다. 지식보다도 태도, 마음의 문제이다. 단순한 교육부족이라고 하기보다는 동기부여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안전에

대한 하겠다는 마음이 부족한 것이다. 따라서 안전의식 고취가 중요하다. 개인개인의 안전태도에는 그가 속해 있는 집단의 힘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 소집단활동에 의한 직장의 하겠다는 마음이 양양되고 구성원인 개인의 안전활성화의 추진이 효과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4) 인간의 과오(Error)

인간의 과오(Error)에 대해서는 아직도 확실한 해명이 없을 뿐 아니라 대책 또한 어려운 입장이다. 이것을 뒷받침이나 하듯 에러를 의미하는 말은 상당히 많이 있다. 즉 잘못, 실수, 틀림, 과실, 과오, 착오, 실패, 실책, 오류 등이 있다. 영어에서도 Mistake, Fault, Defect, Error 등 여러가지의 용어가 있다. 이들의 의미는 똑같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나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정해진 규칙이 없는 것 같다.

고의로 일으킨 규칙위반이나 불안전행동을 에러라고는 하지 않는다.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기능이나 경험부족 때문에, 될 수가 없는 작업이므로 실패하였다는 불안전행동도 에러라고 말을 할 수는 없다.

「알고 있다」「하면 된다」「하려고 하였다」그러나 실수를 하여 할 수 없었다는 경우는 에러라고 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의 원인이 있다. 따라서 인간 과오(Error)에 관한 많은 연구가 요망되고 있다. 근래에는 바이오리듬(Biorhythm)의 활용을 위한 노력도 전개되고 있다.

3. 불안전한 행동별 재해사례

불안전한 행동에 의한 재해사례를 살펴보자.

가. 자세 및 태도

(1) 눈을 바짝 대고 작업한다. → 눈을 아프게,

피로 과중

(2) 무리한 자세로 작업한다. → 부상의 원인,

피로 과중

(3) 작업중 떠들고 있다. → 규율 문란, 부상의 원인

(4) 긴 재료를 휘두른다. → 타인을 다치게 한다.

(5) 압축공기로 먼지를 떨거나 선풍기처럼 사용한다. → 눈에 먼지가 들어간다. 몸을 상하게 한다.

나. 복장

(1) 모자가 필요한데 쓰지 않거나 젖혀 쓴다. → 머리를 다친다. 머리카락을 말려들게 한다.

(2) 작업에 적절하지 못한 신발을 신고 있다. → 발끝이 걸린다. 넘어진다. 미끄러진다. 뺨다

(3) 피부 노출이 많은 셔츠를 입고 있다. → 화상, 닿았을 때 다친다.

(4) 소매 끝이나 수건이 너털거리거나 상의의 단추가 빠져 있다. → 기계에 말려 든다.

(5) 앞치마 사용 금지 작업에서 사용하고 있다. → 몸을 말려들게 한다.

(6) 장갑 사용 금지 작업에서 사용하고 있다. → 손을 끌려들게 한다.

(7) 먼지가 일어나는 작업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 → 호흡기를 상하게 한다.

(8) 찢어진 작업복을 입고 있다. → 기계에 말려 든다.

(9) 작업복이 기름으로 더러워져 있다. → 인화되어 화상을 입는다.

(10) 귀마개가 필요한 작업에서 귀마개를 사용 않는다. → 난청이 된다.

(11) 용액이 튀는 작업, 쇠파루가 날아오르는 작업, 약품이 날아 흩어지는 작업, 유해광선의 용접 작업 등에 보호안경을 쓰지 않는다. → 눈이 상한

다. 시력의 저하 또는 실명한다.

다. 통행

(1) 작업장내를 뛰어다닌다. → 넘어진다. 걸려 넘어지기 쉽다. 충돌한다.

(2) 문짝을 급히 난폭하게 여닫는다. → 손발이 끼인다. 충돌한다.

(3) 계단을 뛰면서 오르내린다. → 굴러 떨어진 다. 추락한다.

(4) 위험한 작업장이나 출입 금지 구역을 함부로 통행한다. → 감전, 추락위험이 있다.

(5)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물건을 가지고 걷는다. → 걸려 넘어진다. 충돌한다. 물건을 떨어뜨린다.

(6) 양손을 주머니에 넣고 걷고 있다. → 걸려 넘어진다. 미끄러질 때 크게 다친다.

라. 운반 및 자재 취급

(1) 많은 것을 묶지 않고 운반한다. → 낙하한다. 발을 다친다.

(2) 40kg 이상의 물건을 혼자서 운반한다. → 뺨다. 떨어뜨려 발을 다친다.

(3) 허리를 꼳꼳하게 들어올리지 않는다. → 허리를 뺨다.

(4) 허리를 비틀어서 몸의 방향을 바꾼다. → 허리를 뺨다.

(5) 긴 물건을 혼자서 매려고 한다. → 남을 다치게 한다.

(6) 무거운 물건을 쌓는 법이 나쁘다. → 낙하한다. 손이 끼인다. 넘어진다.

(7) 무거운 금속재료를 맨손으로 정리한다. → 손이 치인다.

(8) 공동 운반시 신호에 철저를 기하지 않는다. → 물품을 떨어뜨린다. 다친다.

(9) 공구·부품·재료를 난잡하게 늘어 놓고 작

안전강좌

업을 한다. → 걸려 넘어진다.

(10) 긴 물건을 부주의하게 세워 놓는다. → 쓰러진다.

(11) 조립중 보울트 구멍에 손가락을 넣어 지탱한다. → 손가락이 잘린다.

(12) 손이 끼이게 될 위치를 누르고 있다. → 손이 끼어 다친다.

(13) 진동으로 낙하할 위험이 있는 위치에 물품을 놓아 둔다. → 낙하한다. 발을 다친다.

마. 정리 정돈

(1) 통로나 기계의 사이에 불필요한 것을 놓아 둔다. → 걸려 넘어진다. 통행에 지장을 준다.

(2) 재료가 무너질 위험이 있거나 구르기 쉽게 되어 있다. → 넘어져 다친다.

(3) 재료나 공구를 벽에 세워 놓는다. → 걸려 넘어진다. 전도한다.

(4) 출입구나 비상구 가까이에 물건을 놓아 둔다. → 비상시 지장을 준다.

(5) 기름걸레를 마루에 버리거나 선반에 아무렇게나 놓아 둔다. → 화재의 원인이 된다.

바. 높은 곳에서의 작업(고소작업)

(1) 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한다. → 추락한다.

(2) 안전 벨트를 사용하지 않는다. → 추락한다.

(3) 자재나 발판을 함부로 밑으로 던진다. → 낙하물에 다친다.

(4) 발판에 공구, 부품, 재료를 놓아 두고 작업한다. → 낙하물에 다친다.

(5) 좁은 발판에서 무리한 작업을 한다. → 추락한다.

(6) 고소작업장 밑을 통행한다. → 낙하물에 다친다.

사. 화기, 고열 및 유해위험물

(1) 위험구역 내부에 임의로 들어간다. → 감전한다. 추락한다.

(2) 재떨이가 없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운다. → 화재를 일으킨다.

(3) 담배를 문 채 작업을 한다. → 화재를 일으킨다. 규율을 문란하게 한다.

(4) 가열된 금속을 함부로 잡는다. → 화상을 입는다.

(5) 가스의 마개를 연 채 성냥불을 켜다. → 폭발한다. 중독된다.

(6) 땀납이나 용액 속에 물기를 가까이 한다. → 폭발한다. 날아 튀어 화상을 입는다.

(7) 쇳물 주의, 납땀 작업시 보호구를 착용 않는다. → 화상을 입는다. 눈을 다친다.

(8) 쇳물 주입구를 함부로 들여다본다. → 안면에 화상, 눈을 다친다.

(9) 가스 용접시 보호안경을 쓰지 않는다. → 전안염 발생

(10) 인화·폭발물 가까에서 용접작업을 한다. → 인화 폭발

(11) 통풍이 좋지 못한 탱크 안에서 가스 발생 작업을 한다. → 질식사한다.

(12) 날아 흩어질 위험이 있는 악품 취급에 보호구를 사용 않는다. → 날아서 눈에 들어간다. 열상을 입는다.

(13) 유리용기를 거칠게 다룬다. → 손을 잘린다.

(14) 위험물을 정량 이상을 두고 작업한다. → 인화·폭발

아. 공구

(1) 해머 등 공구를 바닥에 놓아 둔다. → 걸려 넘어진다.

(2) 공구를 기계나 발판이나 작업대의 가장자리

에 놓아 둔다. → 낙하하여 발을 다친다.

(3) 공구류를 던져서 주고 받는다. → 발이나 손을 다친다.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다.

(4) 사물이나 여분의 공구를 갖고 있다. → 방해가 된다.

(5) 해머 작업에 장갑을 사용한다. → 손에서 미끄러져 빠져 나간다.

(6) 해머를 좁은 장소에서 크게 휘두른다. → 헛친다. 떨어뜨린다. 타인에게 위해를 끼친다.

(7) 쇠기가 없는, 머리가 빠지려는 손잡이가 부러질 듯한 변형된 해머를 사용하고 있다. → 해머가 떨어져 나간다. 손잡이가 부러진다. 다른 것을 때린다.

(8) 볼트 너트에 맞지 않는 스페너나 렌치를 사용하고 있다. → 벗어나 손을 다친다.

(9) 불량한 줄을 사용하고 있다. → 잘못 자른다. 손을 찌른다.

(10) 줄질한 부스러기를 입으로 불어 날게 한다. → 손바닥이나 발을 찌른다.

(11) 홈에 맞지 않는 드라이버를 사용하고 있다. → 벗어나서 손을 찌른다. 앞으로 기울어진다.

(12) 손잡이를 달지 않은 줄을 사용한다. → 손바닥이나 발을 찌른다.

(13) 날이 무딘 나이프를 무리하게 사용한다. → 칼날이 빗나간다.

자. 동력공구

(1) 불안정한 상태에서 연마하고 있다. → 낙하한다. 발을 다친다.

(2) 작은 물체를 고정시키지 않고 구멍을 뚫는다. → 물체가 회전하여 다친다.

(3) 작동중에 쇳가루를 손으로 털어 버린다. → 말려든다. 손가락을 잘린다.

(4) 전기·핸드 드릴에 몸을 기대고 작업을 한다. → 바지가 끌려들어간다. 드릴을 부러뜨린다.

앞으로 쓰러진다.

(5) 불안정한 자세로 공기 해머를 사용한다. → 전도한다. 몸이 쏠려 넘어진다.

(6) 수리 종료 후에 공구를 빼놓지 않았다. →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다.

차. 전기기구

(1) 나이프스위치의 개폐가 불량하다. 스위치의 개폐가 완만, 스위치를 선에 걸쳐 놓고 사용하고 있었다. → 화상을 입는다.

(2) 전기기구를 함부로 수리하거나 스위치를 끄지 않고 전선의 부착작업을 한다. → 감전한다. 화상을 입는다.

(3) 수리작업시 스위치에 표찰 없이 작업한다. → 감전한다. 회전체 등에 말려든다.

카. 크레인

(1) 지정된 작업자 외 다른 사람이 걸기작업을 한다. → 물품을 떨어뜨린다.

(2) 와이어로우프에 걸린 정도를 확인 않고 신호를 보낸다. → 물품이 떨어진다.

(3) 불량 와이어로우프를 사용한다. → 와이어로우프가 절단된다.

(4) 물체를 경사진 채 매달고 있다. → 추락한다.

(5) 매단 물품의 위에 타고 있다. → 추락한다.

(6) 물체를 잡아당기면서 놓을 위치를 정한다. → 발을 으스러뜨린다.

(7) 변형, 불완전한 것을 겹쳐 달아맨다. → 떨어지기 쉽다.

(8) 물체 거는 작업자가 물품을 유도한다. → 충돌한다.

(9) 크레인의 운전을 난폭하게 한다. → 물체를 떨어뜨린다.

4. 불안정한 행동 예방대책

가. 작업지도 감독 실시

(1) 작업지도

작업장에서 작업원이 기능을 익히기 위한 특별한 시설을 갖추기는 어렵고, 또한 전문적인 지도원을 두는 것도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다. 대다수의 작업원은 지시된 작업을 수행하면서 직반장이나 숙련된 선배의 지도에 따라 기능을 몸에 익힌다.

그러므로 작업책임자(과장, 주임급)들은 모든 실정을 잘 파악하여 직반장에 대하여 부하 지도 방법을 교육시켜야 하며, 또 그것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는 입장에 있다.

한편 직반장은 직접적으로 작업원을 지도 감독하는 위치이지만 책임자들은 공정의 진행을 보아 직반장을 지도 감독하여 간접적으로 작업 추진을 도우는 것이다.

직반장이 작업원에게 어떠한 작업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지도하느냐에 대한 목표와 방법을 정하여 그것을 지시하는 것이 作業責任者의 역할이다. 작업 지도를 철저히 하게 하면 다음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① 확실하게 작업하면 잘못되거나 사고를 일으키는 일이 적다.
- ② 짧은 시간에 작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또 같은 시간이라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③ 공구나 기계의 취급이 신중해진다.
- ④ 작업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알게 되어 그것에 만족하며 충실해진다.
- ⑤ 능력의 기초가 확실히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작업도 쉽게 할 수 있다는 자신이 생기고 작업

지도의 의미와 효능을 잘 알게 된다.

(2) 작업감독

작업 준비에서 결정된 사항, 작업 진행시의 지시, 작업간의 연락 조정, 법규에 명시된 준수 사항 등이 지시, 지도한 대로 행해지고 있는가를 작업하는 사람과 작업 자체로부터 판단하여 규정대로 행하게 하는 수단을 「監督」이라 한다.

지시하고 지도한 것이 전제가 되었는에도 「알지 못했다」, 「되지 않았다」 등은 이유가 되지 않으며, 각기 개인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것이다.

작업책임자는 직반장을 지도, 감독하여 작업 수행의 책임을 부담시키게 되는데 지휘에는 指導·指示가, 감독에는 監視·督勵가 포함된다. 그러나 그 범위나 한계는 각 사업장의 권한 설정 방식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일률적인 것은 좋지 않다.

1) 작업 착수 전의 감독사항

- ① 직반장으로서 일반 유의사항을 잘 알고 있는가
- ② 作業員 配置 원칙을 알고 있는가.
- ③ 법규에 있는 필요한 有資格者의 배치는 좋은가
- ④ 작업방법, 작업순서가 확인되어 있는가
- ⑤ 작업간의 사전 연락은 되어 있는가

2) 작업 진행중의 감독사항

- ① 직반장의 시행방법에 대하여
 - 工程대로인가, 아닌가
 - 危險場所, 危險作業의 내용이 명확히 되어 있는가
 - 작업 주임자, 감시인 등 필요한 담당자가 적정 위치에서 작업하고 있는가
 - 작업원에 대한 지시가 적절한가
- ② 작업방법에 대하여,
 - 작업 준비, 지시가 지켜지고 연락이 행해지고 있는가

- 계획이 변경되고 있지 않은가
- 작업 주변의 위해 방지(제3자) 조치가 되어 있는가
 - 재해 발생시의 조치가 표시되어 있는가
 - 법규에 표시된 사항이 무시되고 있지 않은가(無資格者, 指名者 이외의 자의 무단 취업, 안전장치, 보호구의 무시 등)
 - 안전모임이 행해지고 있는가

(3) 작업 종료 후의 감독사항

- ① 작업은 지시대로 행하여졌는가
- ② 위험한 상태는 없는가
- ③ 불이나 비바람에 대한 조치는 되어 있는가
- ④ 部下에 관심을 두고 職場規律은 지켜지는가

나. 안전순찰 실시

현장에서 작업 진행상태가 안전상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순찰(patrol)이다.

순찰을 할 때에는 우선 安全作業에 대해서 수칙을 세우고 이것을 작업원에게 교육하는 것이 전제조건이 된다. 그러지 않으면 순찰에 대해 작업원으로부터 반감을 사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안전작업의 수칙을 세울 때 작업원의 의견도 들어가며 정확한 안전작업은 어떠한 것인지를 이해시켜 두지 않으면 안된다.

이 점에 결점이 있으면 안전교육도 형식적인 것이 되며, 작업원에게 충분한 이해와 동의를 얻을 수 없다. 이러한 조건하에서는 순찰을 해서 나쁜 점을 지적하여도, 순찰을 하는 사람이 그 곳에 있을 때만 마지못해 따라오는 데 지나지 않으며, 그 장소에 없으면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그러나 순찰 전에 충분히 검토해두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순찰 목적의 반은 달성한 것이나 다를 없다. 다만 그 끝마무리로서 순찰을 실시해서, 잘

못된 것을 시정하여 가면 안전작업 그 자체가 작업자의 몸에 배어서 자연히 소기의 목적이 달성된다.

다. 안전의식 고취

(1) 안전모임(T. B. M: Tool Box Meeting)

현장에서의 안전작업 습득은 작업을 통해 이루어지며 작업이나 기능을 몸에 익히는 중에 안전에 대한 知識이나 態度도 익히게 된다. 작업 착수 전이나 작업 진행중 또는 작업 종료 후에 작업 지도를 할 때가 그대로 안전교육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장은 生産本位로 움직이고 있으므로 좋은 제품을 單價로 빨리 안전하게 완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작업원의 배치도 각기 직종별로 배치되므로 무리는 없다.

그러므로 그 곳에서 행하여지는 교육방법은 가르치는 입장(직반장)이나 배우는 입장(作業員)도 다같이 産業災害 豫防의 역할이 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

그러므로 강제적인 것보다는 일을 하기 위해 스스로 모인 작업 그룹이 職場을 중심으로 작업의 준비, 일의 중요성, 안전작업에 눈을 뜨도록 대화하는 것으로서, 직반장의 자주적 판단과 작업원의 자발적인 활동에 의해 진행되면서 발전한다.

(2) 安全競爭

인간은 대부분 경쟁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자극시켜 안전의 향상을 꾀하고 있으나 안전경쟁에는 규정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반적으로 항목별 減點方式을 채택하여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감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기타 순찰 등에서 지적된 규정 위반, 안전작업 수

칙을 지키지 않을 때도 감점한다. 말하자면 위반이 5건 있으면 재해(상해) 1건으로 보아 감점하는 식으로 한다.

또한 작업원 전원이 항상 좋은 상태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하여 매일의 상황을 그래프 등으로 나타내어 목표 달성에 노력하도록 한다.

안전경쟁을 행하는 기간이 너무 길면 의욕이 없어지므로 3개월마다 표창을 한다. 또 6개월이나 1년으로 구분하는 것도 자극이 된다.

경쟁은 반 단위를 하나의 그룹으로 한다. 작업의 종류에 따라 위험도가 다르므로 그것을 고려하여 반 전원이 납득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3) 안전제안제도

안전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작업원에게서 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제도로서, 이는 전제조건으로 안전교육이 철저히 되어 있어야 가능하다.

작업원이 문장을 쓰거나 工作圖面을 그리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단지 안전 아이디어(提案)만 제공하면 되고 이것을 취합하여 구현하는 데는 기술자가 협력하면 되는 것이다.

제안 중에는 관리자가 보기에 쓸모없는 것도 있겠지만 어떠한 아이디어라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 작업원이 또 다른 案을 생

각할 의욕이 생기기 때문이다.

물론 효과가 있는 제안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실시하여 그 실적을 바르게 평가하여야 하지만 효과가 기대되지 않는 제안이라도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提案制度를 안전의식의 고취에 활용하려면 꾸준한 노력과 연구가 없으면 안 된다.

(4) 안전당번제

안전은 안전관리자의 강요에 의하여 되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강요에 의하여 안전의식이 고취되는 않는다. 때로는 작업원이 관리자의 입장에서 자기 현장의 안전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며 이러한 기회를 만드는 것이 安全當番制이다.

이에 의해 항상 작업원 자신이 안전을 실행, 관리한다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 제도를 전개하려면 전제조건으로 안전지식교육이 작업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철저히 되어 있어야 한다.

(5) 선전, 현상공모 안전표창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려면 다각적으로 각 면으로부터 갖가지 방책을 전개시킬 필요가 있으며, 安全標語, 포스터, 論文 등의 현상 모집이나 안전 선전, 안전 표창 등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